

경제

여수산단 입주기업 1조5천억 신규 투자계획 있지만 공장용지 확보 못해 허공에 날릴 판

도, 주민 생활여건 악화 이유 녹지개발 난색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이 1조5000억원이 넘는 신규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용지가 없어 차질을 빚고 있다.

18일 여수산단 입주기업들과 여수시에 따르면 여천NCC(주) 등 산단 입주기업들은 공장 설비 신축 등을 위해 1조5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천NCC는 9000억원을 들여 부티디엔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며, 화인케미칼은 1100억원 규모의 티다이공장을, 호남석유화학은 5200억원 규모의 에틸렌 및 프로필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천NCC와 화인케미칼은 지난해 말 여수시에 여수산단 녹지 14만㎡를 공장 용지로 변경 신청했다. 호남석유화학도 지난 2월 녹지 8만5000㎡를 공장 용지로 추가 신청했다.

이들 기업은 석유화학 공정 상 생산되는 부산물인 납사 등을 유기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공장 용지보다 용지가 필요하며 녹지공간을 공장용지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들 기업은 현행 국가산단의 녹지 비율이 10%로 규정돼 있는데 여수산단의 경우 11%로 1%에 해당하는 48만㎡ 규모는 공장용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장 용지로 전환된 규모만큼 대체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시도 산단 입주기업 지원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용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체 녹지 확보를 전제로 이들 기업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남도에 산단 녹지 개발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인근 주민들의 생활여건 악화 등을 들어 녹지는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해당 기업들에게 ▲환경영향 평가서 ▲인근 주민 동의서 ▲환경단체 동의서 ▲산단 입주업체 동의서 등을 요구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녹색전환을 표방하면서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할 수는 없다”며 “인근 광양과 대불산단에서도 용지 전환을 신청한 상태로 여수산단만 해줄 경우 행정상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수상공회의소 정병식 조사부장은 “여수산단 입주기업은 지난해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올리는 등 호황에 힘입어 많은 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신규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을 통한 용지 전환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물류기업 절반 이상

“현장 일할 사람 없다”

과중한 업무, 기피 업종이라는 편견, 잦은 인력 이동 등으로 말미암아 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물류기업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물류기업 402곳을 상대로 최근 조사해 내놓은

“2011년 물류인력 수급 실태”에 따르면 물류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56.8%였다. 물류영업(18.9%), 국제물류(9.3%), 물류기획(9.3%), 물류정보:IT(5.7%) 분야에서도 기업들은 인력부족 현상을 겪는다고 답했다. 인력 부족 이유로 기업들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잦은 인력 이동(38.3%), 물류 수요 증가(20%), 물류업에 대한 편견(19.2%) 등을 꼽았다.

“FTA, 농림수산업 피해 크지 않다”

윤영선 관세청장 광주 수출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윤영선 관세청장은 18일 광주를 방문한 광주지역 기업들의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위한 현장 지원활동을 벌였다. 윤 청장은 이날 낮 청평동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지역 수출기업 CEO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FTA 특혜관계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청장은 특히 기업들이 올해 발

효예정인 한-EU(유럽연합), 한-미 FTA 특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수출자 지정, 협정 적용 절차 등을 설명하고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윤 청장은 “한국도 세계 무역의 흐름인 자유무역에 맞춰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윤 청장은 앞서 조선대학교 경상대

하고 8층 세미나실에서 무역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글로벌 무역과 FTA 추진현황’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칠레산 농산물 수입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한-EU FTA로 인한 새로운 농림수산업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며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물가이고 일본 원전 사고 등 기상 이변 등의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세계 무역의 흐름은 자유무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도 여기에 맞춰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중소 채용담당자 23%

“스펙 좋은 구직자에 부정적”

중소기업 채용담당자들은 구직자의 출신 학교나 어학능력 등 소위 ‘스펙’이 지나치게 좋을 경우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중소기업 채용담당자 30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23.1%가 ‘스펙이 지나치게 좋은 지원자에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이들은 모두 ‘실제로 이 때문에 구직자들을 탈락시킨 일이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좋은 직장을 찾아 금방 떠날 것 같아서’(63.4%)라는 응답 가장 많이 나왔다.

또 ‘애사심, 충성도가 약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 같아서’(16.9%), ‘더 높은 연봉수준을 요구할 것 같아서’(12.7%), ‘업무능력이 오히려 떨어질 것 같아서’(4.2%), ‘대인관계나 조직 적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2.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스펙’의 기준으로는 ‘높은 학벌’(39.0%)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연합뉴스

기업 세무조사 4년새 40% 감소

삼성그룹 세무조사 등으로 재계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정작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는 최근 4년새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의 수는 2005년 6343곳에 달했으나, 4년 만에 40% 가까이 줄어 2009년에는 4000곳에도 못 미친 3867곳에 불과했다.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의 수는 2005년 6343곳, 2006년 5545곳, 2007년 4174곳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에는 2974곳에 지나지 않았다.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부과한 세액도 2005년 3조158억원에서 2009년 2조735억원으로 4년 새 3분의 1가량이나 줄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2,137.72 (-2.78)
코스닥지수	528.52 (-6.06)
금리 (국고채 3년)	3.70% (-0.02)
원·달러 환율	1,088.40원 (-1.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삼성화재 기업영업 전문 컨설턴트 모집

27일까지 호남지점

삼성화재(사장 지대섭)는 18일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영업 전문 컨설턴트(CRC·Corporate Risk Consultant·사진)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CRC는 기업체 및 단체 대상 기업보험 컨설팅을 전문하는 조직으로, 그동안 서울·수도권에서만 활동했으나 지난해 광주·대구를 비롯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CRC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퇴직자, 설계사 경험자, 고수익을 원하는 사람 등에게 적합하며, 특히 퇴직연금의 의무화하면서 시장이 확대돼 인기직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 최근 활동 1년 만에 연봉 1억원을 돌파한 CRC도 탄생했다. 모양건(37) CRC는 “기업활동에 꼭 필요한 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단체보험 등을 취급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돌보고 있다”며 “특히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서 시장이 크게 확대돼 발전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전문 CRC로 육성할 계획이다. 회사가 정한 수수료 및 활동기준을 달성하면 초기활동비 150만원에 매월 최소 200만원의 기본 수수료가 지급된다. 또 개인 PC구입비용을 100만원 한도로 분할 지급하는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CRC에 관심있는 사람은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내 ‘CRC 지원’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오는 27일까지 이메일(crc2011@smasungfire.com)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 150명에 다음달 4일 지역별 설명회를 연다. 문의 삼성화재 호남 CRC지점 062-612-520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대차 인턴사원 모집

현대자동차는 19일부터 ‘2011년 하반기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인턴사원은 여름방학 기간 현대차 국내 본사와 연구소, 공장, 해외법원에서 근무하며, 평가 우수자는 신입사원으로 정식 채용된다.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4년제 대학생이 모집 대상이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검사(HKAT), 3차 면접전형, 4차 신체검사를 거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5월 중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통지된다. 지원서는 1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현대차 홍보 홈페이지(pr.hyundai.com)에서 접수할 수 있다. /연합뉴스

사공일 무역협회장 來光

사공일(사진) 한국무역협회장은 19일 오후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에서 지역 무역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무역현황의 애로 파악과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 사업을 설명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셀프아트 단열결로방지 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 난방비 절감효과,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특허 제0497254호 / 특허 제10-0562035호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062) 511-0444
대리점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편백나무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

www.oknwood.com
日本産 히노끼(편백나무)로 만든 가구

편백나무는 무병장수의 나무입니다.

- 탁월한 피톤치드 효과 · 이토피 치유 효과
- 비염 · 천식 치유 효과 · 쾌적한 살균력 효과
- 집중력과 기억력 증가 · 해충 방지 효과
- 소취 및 유해물질 중화
- 연역기능 증대 자연치유 효과

목조주택 & 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친환경 제품
· 한국 편백, 일본 편백 · 황토마루, 게르마늄 분말(황토, 게르마늄 토핑)
· 친환경 용접제, 친환경 단열재, 필름칼라 내장 마감재, 목모노

각종 내장재
· 특수목, 남미산천연테크재, 독일산 아이볼(오일스테인), 연동도어, 보석리얼, 접합유리방열, 필름칼라, 문막, 필름

판매품목
· 장승, 5단서랍장, 수납공간, 붙박이장, 조육기, 독서대, 책상Set(의자·책꽂이)
· 침대, 샹들, 편백간담베개(편백시트) & 고품질시트 & 편백나무제 · 편백나무제 · 편백나무제

편백나무가구 전문업체
광남종합목재건축상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062)652-2935-2223 fax.062)651-5141

협력사 | 우던페이퍼몰딩 | 태원목재 호남총판 | KCC석고보드총판 | 라파즈 석고보드 총판 | KCC강화마루 | 등화마루 대리점 | 레토피아 합성목재 호남총판